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 여성환경연대(ecofem)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환경연대(ecofem)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면담 중인 장이정수 상임대표

사회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지구적 차원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상황이 여성환경연대가 말하는 생태적인 삶,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드러내 주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장이정수 🗣️ 바쁘게 돌아가던 공식적인 회의들이 줄어들고, 준비하고 있던 큰 규모 행사들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시간을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책도 좀 읽고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를 갖고 다시 운동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할까요. 회의와 행사는 줄었지만 사람들과의 연대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팬데믹이 모두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역활동을 통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 ♣ 그간 운동적으로 제안해 온 “플러그를 뽑고, 한 박자 천천히” 느리게 살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네요. 여성환경연대가 지난해 20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의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이정수 ♣ 90년대 들어 한국사회에서 환경운동단체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여성환경연대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에코페미니즘 연구자,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환경이슈에 관심을 가진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 에코페미니즘 담론작업과 함께 환경·생태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여성운동이 왜 환경문제에 관심이 부족한지를 토론하는 전국연수도 진행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리우+ 이후 환경과 사회와 경제를 통합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강조되면서 의제21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을 다루기도 했고, 각 생협에서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의료생협, ‘건강’과 관련된 이슈 등 어떤 건강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도 모색해왔습니다.

2005년 즈음에는 당시 사회운동의 변화 속에서 대중적인 운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됩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에 여성환경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랑지역에서 초록상상이라는 지역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촛불을 켜고 석유문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캔들 나이트(Candle Night)’, 환경오염의 주범인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자기 컵을 사용하는 슬로라이프를 제안하는 ‘위더컵(WITH A CUP)’ 캠페인 등 운동가가 아닌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안생활운동, 환경문제가 여성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여성 유방암 캠페인, 아토피와 같은 환경보건운동으로 관심사를 확장을 해왔습니다. 초기부터 주요 의제였던 국제연대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아시아 여성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공정 무역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씨앗을 틔워 페어트레이드코리아가 주식회사 형태의 비즈니스모델로 만들어졌지요.

2015년쯤 다시 운동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웠습니다. 여성환경연대가 초창기에는 활동가그룹을 중심으로 성평등하고 생태적인 한국사회 전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후 10년은 풀뿌리 여성들과 지역에서 어떤 운동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실천하는 한편 대중운동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의 시도를 통합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니다.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대중화 시기 한국 사회에 에코페미니즘 담론을 확장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 20주년을 맞아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도 출범을 했습니다.

사회 ♣ 지난 20년간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환경·생태운동의 젠더정의(gender justice) 그리고 페미니즘의 생태적 감수성을 접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이정수 ♣ 사실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운동의 패러다임에 여성환경연대가 생태주의 담론을 붙여넣는 것은 아직까지 충분치 못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여성의 몸과 관련해서 보면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는 여성운동이 함께하는 공통의 이슈가 되었지만, 주류 여성운동이 월경하는 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는데 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류 여성운동과 여성환경운동이 월경을 보는 입장이 조금 달랐거든요. ‘몸’이라는 담론이 페미니즘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잖아요. 월경 자체에 대한 사회적 터부도 있지만, 페미니스트들도 월경이 사회활동이나 여성들의 평등한 일에 장애가 되고 불편한,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고 싶은 것으로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생각이 더 강하기도 해요. 우리가 근대적인 남성성이 강조하는 ‘생산하는 몸’이 아닌 다른 몸을 받아들일 때, 아프면 쉬는, 무한히 써먹을 수 없는 몸이라는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풀뿌리 여성들이 참여한 골프장 반대운동이나, 막개발에 반대했던 지역운동들도 지속가능한 삶과 환경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환경운동단체의 회원모임이 흡수되거나 지역 풀뿌리운동의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되었지, 여성운동으로 독자적인 조직화를 이루거나 하지는 못했거든요.

성장주의로 달려왔던 한국 사회에 브레이크를 걸고 다른 대안적인 삶을 상상한다거나 여성운동에 생태주의가 온전히 교차하기에는 미약하지 않았는지 그런 아쉬움과 반성이 있습니다.

사회 ♣ 여성운동의 전략 자체도 끼어들기와 새판짜기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성환경연대가 환경운동과 여성운동 사이에서 끼어들기와 새판짜기를 시도하면서 그 틈새에서 좀 외롭지 않으셨어요?

장이정수 ♣ 엄청 외로웠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여성환경연대는 여성운동 우산조직에는 속해있지 않거든요. 참여회원단체가 아니다 보니 일반적인 여성

운동의 교류랄까,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총회도 같이 가고 서로의 운동적 목표를 공유하고 그런 부분을 함께 하기 어려웠습니다. 환경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인 <환경회의> 소속이지만, 메이저 환경단체들의 주요 의제에서 여성건강 이슈는 굉장히 소수의 목소리에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발암넷) 같은 경우 아토피나 환경호르몬, 가슴기살 규제 등 화학물질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하게 다뤄지지만 그 안에서도 환경보건 이슈가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가적인 방향으로 가다 보니 남성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사이에서 외로웠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운동 우산조직에는 속해있지 않다. 참여회원단체가 아니다 보니 일반적인 여성운동의 교류랄까,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총회도 같이 가고 서로의 운동적 목표를 공유하고 그런 부분을 함께 하기 어렵다. 환경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인 '환경회의' 소속이지만, 메이저 환경단체들의 주요 의제에서 여성건강 이슈는 굉장히 소수의 목소리이고, 남성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 ♣ 그럼에도 여성환경연대라는 생각보다 작은 조직이 이끌어낸 성과로 대중적인 영향력이나 주목을 받은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앞서 언급한 위더컵을 포함해 공정무역이나 <마르쉐>는 여성운동이 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로 이어지는 시도이기도 한데, 자량을 좀 해주세요.

장이정수 ♣ 여성환경연대 초기 국제연대는 <동북아 여성환경회의>로 시작되었는데, 페어트레이드 코리아는 아시아 여성들과 손잡는 구체적인 시도였어요. 한국에서 공정무역이 시작되던 초창기에 주로 남성들을 중심으로 공정무역커피를 판매하는 사업을 많이 벌였는데, 페어트레이드코리아는 아시아 여성들의 노동에 주목하고 이 여성들을 지원했을 때 공동체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자급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서 여성들의 수공업품이나 의류 공정무역을 시도했습니다. 통해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농부의 시장 <마르쉐>는 3.11 후쿠시마 이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에 주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이 농업 자급률이 23%밖에 안돼요. 토종종자 지키기부터 여성농민운동 등 여성환경운동에서 농업이 정말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랄까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텃밭사업을 해왔습니다. 병원에서 여성 암환우를 대상으로 병원 텃밭, 옥상 텃밭, 학교 텃밭 등 도시 사람들에게 생태적 감수성을 깨우는 시도를 해오다가 실제로 도시인들이 농사를 지어도 직접 요리를 해먹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귀촌한 사람들이 농사지는 먹거리들을 직접 도시민과 나누는 연결통로이

기도 하고, 사람들이 도시농부나 수공업자들과 만나는 굉장히 좋은 장터이기도 합니다.

사회 ♣ 대중운동 방식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시장주의적인 인식이 급격히 강화되는 시기와도 맞물리는 것 같은데, 에코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여성환경운동이 대중전략을 취하면서 너무 말랑말랑한 접근을 한 것은 아닌지, 혹시 마켓 페미니즘과 같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지적은 없었는지요?

장이정수 ♣ 기후위기로 지구가 망해 가는데 텀블러만 들고 다니면 되냐, “해일이 몰려오는데 조개 줍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 페미니스트들이 ‘텀블러’를 계기로 이전에는 질문해보지 못했던 생태적 삶에 관해 고민해볼 수 있게 하자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문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전략이었어요.

연예인을 섭외해서 텀블러를 들고 사진을 찍어 홍보를 했고, 환경·생태운동이 무서운, 공포를 조장하거나 사람들의 도덕주의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여성환경연대는 활동가들 절반 이상이 2030세대였고, 운동을 힘들고 무겁게 하지 않고 작고 가볍게 하고 싶다는 활동가들의 정서 반영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삶부터 조금씩 바꾸어나가고 거기서 위로를 얻는 그런 활동가들의 내면적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 같은 걸 중요시 하고, 마르쉐라던가 페어트레이드코리아도 보면 감각적인 디자인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감성에 맞는 문화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에코페미니즘이 굉장히 근본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면서 하는 운동은 너무 작고 가벼운 것 아니냐 하는 자괴감이나 내부의 반성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심해지는 한국사회 신자유주의를 그 운동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농업문제와 연결, 노동과 경제체제에 대한 부분을 통합적인 운동과 담론으로 연결하는 전망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팬시한 대중운동’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그걸 계기로 에코페미니즘의 철학을 담아 참여하는 이들 스스로 직접 자기성찰을 하도록 이끄는 방식의 시도가 <에코 컨퍼런스>였을까요?

장이정수 ♣ 2016년에 처음 에코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운동이 개별적인 실천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고,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

즘 공부모임인 <달과 나무 포럼>에서도 제안을 해주셨어요. 시기적으로 강남역 페미사이드 사건이 발생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늘어나게 되었고, 촛불집회와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이어지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에코컨퍼런스는 한국 사회에서 다르게 살고자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중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공론장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발언자로 나서서 자신의 고민과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류의 장으로 매년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모아 최근에 책을 묶어 냈어요. 「괜찮지 않은 세상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제목으로요. 저희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삶과 현장에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찾아서 한국의 에코페미니즘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 여성환경연대가 최근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슈 중 하나가 “생리대 유해물질”에 관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동네 마트의 매대 진열상품이 바뀌고 어떤 상품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은 어떤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이정수 ♣ 한국 여성의 90% 이상이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여성 한 명이 40년간 일회용 생리대를 쓰면 그 양이 엄청난거죠. 일회용생리대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초창기부터 면생리대를 쓰자 생리대를 직접 빨면서 직접 생리혈을 확인하기도 하고 자기 몸의 건강상태를 살피자는 대안생리대 운동을 해왔습니다. <바디버튼>이라는 다큐 프로그램과 연결되면서 생리통이 심한 여성이 대안생리대를 사용하면서 겪는 변화를 실험했을 때 생리통증이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했어요. 전문연구자의 도움으로 일회용생리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정제품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40년간 일회용생리대 판매관리를 해왔지만 유해물질에 관한 기준조차 없었던 점을 문제제기하고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성운동과 전면적으로 결합하면서 여성운동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환경연대라는 개별 단체로서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서 3억 원에 달하는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해당 기업에서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인지라 조속히 사법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과이면서도 한 편으로는 제도화에 따른 의도치 않은 고민도 있기는 합니다. 생리대 안전성 기준 자체가 강화되면서, 대안생리대를 만드는 곳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규율되다 보니 거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자활사업장에서 대안생리대를 만들어 판매하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시설과 검사시설을 갖추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는 이런데서는 비용 감당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다른 업체들은 할 수가 없고 '한나패드'에서만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생산이 어려워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했고, 그나마 시험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년이 넘도록 시험성적서를 안줘서 제조를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겠지요.

여성환경연대가 최근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슈 중 하나가 “생리대 유해물질”에 관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40년간 일회용생리대 판매관리를 해왔지만 유해물질에 관한 기준조차 없었던 점을 문제제기하고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성운동과 전면적으로 결합하면서 여성운동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실태조사나 표시기준 강화 같은 대처 외에 정부의 정책대응에 혹시 더 제안해주실 부분은 없을까요?

장이정수 ♣ 일회용생리대 뿐만 아니라 여성청결제나 미백화장품 등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이라는 명목으로 쓰이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여성건강,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환경부, 여성가족부, 식약처 등이 칸막이를 넘어 융합적인 공동연구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접근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후 위기의 피해에 관한 젠더접근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19의 피해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공통의 과제를 설정해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복합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보스턴 연구공동체'가 의료중심의 운동에서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해서 말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실제로 건강정보를 알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 효능감을 높였던 방식처럼 젠더건강을 여성부나 환경부 모두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잡아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의 피해에 관한 젠더접근, 코로나19의 피해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공통의 과제를 설정해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복합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사회 ♣ 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도 함께 해오셨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성과 재생산,

건강 측면에서 보편적인 무상생리대도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역·기초 지역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변화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지요?

장이정수 ♀ 아시다시피 청소년 생리대 이슈는 ‘깎창 생리대’를 계기로 복지적 접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로 네덜란드에서도 무상생리대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고요.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하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보급”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이것이 UN공공행정대상을 받기도 했는데, 운동적인 문제 제기가 선거라는 국면과 정당의 개입이 맞물리면서 정치가 예상보다 빨리 응답해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 서울시 차원에서 보면 성평등조례 개정을 통한 ‘비상용생리대’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보편적인 생리대 지급, 건강권으로 가는 중간 과정일테죠. 지난 연말에는 아동청소년 인권조례의 관련규정도 개정이 되어 ‘빈곤’을 삭제했습니다. 공공기관 비상용, 아동청소년 조건을 넘어 보편적 여성건강권으로 가는데 풀어야 할 여러 쟁점이 있지 않을까요?

장이정수 ♀ 저는 보편적인 건강권에 대해서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일회용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건강권인가?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보편적 지급이 된다면 실질적인 예산의 확보 외에 지급 방식이랄지 선택의 폭이랄지 하는 방법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복지적 접근을 넘어서는 건강에 대한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월경용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외에도 교육을 비롯해서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제도화시키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월경에 대한 사회교육 인식개선, 다양한 월경용품에 대한 교육, 여러가지 환경문제, 플라스틱-프리 월경을 주장하는데 모든 것이 플라스틱 내지는 석유에 기반한 월경에 대한 성찰, 이런 복합적으로 같이 가야지만 보편지급이 여성건강의 문제와 결합이 되는 운동으로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 ♀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성환경연대는 출발부터 개별사안에 대한 이슈화보다 담론이나 철학에도 방점을 찍어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이정수 대표님께서도 에코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이정수 ♀ 저에게 에코페미니즘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틀이라고 봐요. 리버럴 페미니즘에서 벗어나 반자본주의적인 입장을 세워야 하고, 이런 급진성을 만들어가야죠. 성장 지향의 신자유주의 경제 토대 위에 모든 사회 경제 문제가 얹혀있는데, 이제 생태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경제, 새로운 경제체제를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젠더관점의 건강운동, 풀뿌리운동, 농업이 한국의 사회 운동에 중요한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마리아 미즈와 반다나 시바가 함께 쓴 「에코페미니즘」이 다시 번역되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GDP는 국민총생산이 아니라 국민총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경제와 사회, 인간적인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에코 페미니스트들이 투쟁해야하지 않을까.

사회 ♣ 요즘 ‘페미니즘 대중화’라는 흐름과 맞물려 ‘4B’나 ‘탈코’ 같은 입장이 에코페미니즘이 갈등하는 지점이 없는지요?

장이정수 ♣ 한국 사회에서 에코페미니즘 담론의 저변이 넓지 않다 보니 ‘영성’이나 ‘여신’ ‘모성’에 대한 오해도 없지 않고,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가하게 텃밭이나 가꾸고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여유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기도 합니다. 저는 이 ‘페미니즘 리부트’뿐만 아니라 IMF 이후에 여성혐오가 더 커지고, 세대 간의 갈등도 더 가시화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화되고 하는게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자유주의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조차 일회용품으로 만들고, 미래가 없고, 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존재로 취급하잖아요. 노동이 여성화되고 경제나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사회구성원에 대한 폭력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물론 정치도 바뀌어야하고 사회구조를 바꿔야 하지만, 일단 여성들이 스스로 자본주의 트랙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산다는 게, 모두 다 화폐로 환산되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성공이 아닌 다른 삶을 시도하는, 자기 삶에 대한 경험을 조금씩 늘려나가면 좋겠습니다. 2030세대가 에코페미니즘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동물권 운동이나 비건운동 등 비인간동물에 대한 감수성도 다르지 않아요.

타인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늘려나면서 지금 경제체제를 한꺼번에 뒤집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고민하고 연대할 때 당장 살아갈 수 있는 숨구멍이 생기는 것이고, 기본소득도 요구하고 연대의 힘을 갖출 때 우리가 좀 더 바라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 정부, 정치에 대한 요구도 공통분모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늘려나면서, 지금 경제체제를 한꺼번에 뒤집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고민하고 연대할 때 당장 살아갈 수 있는 숨구멍이 생기는 것이고...

사회 📢 노동과 돌봄이 분리되지 않는 '서로돌봄'이라는 연결된 사고나 실천,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이 중요하겠네요.

장이정수 📢 에코페미니즘이 지적하고 있는 핵심 중 하나는 근대 자본주의가 여성도 상품으로 만들고 자연도 상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돌봄도 시장화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돌봄은 인간의 삶에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치 없게 만들었고, 시장상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그것을 여성이 감당해요.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 누구도 돌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도록 하는, 남성도 예외가 아니고, 돌봄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나 노동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여성에게, 가정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노동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줄이고 돌봄을 수행하는 대면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사회 📢 그간 젠더정책으로 정부가 가장 비중있게 다룬 의제가 보육이었고, 그 방향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24시간 돌봄, 온종일 돌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소 평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은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아동은 시설을 통해서 돌봄을 받는 방식인데요.

장이정수 📢 저는 그런 흐름과 다른 입장입니다. 가정, 지역사회, 학교를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데, 진짜 시설에서 돌봄이 업무로만 전담되는 방식을 옳지 않다고 보고, 다양한 마을과 다양한 주체, 다양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 여성운동도 일생활균형 정책을 촘촘하게 해가면서 지역사회에서 그걸 수행하는 돌봄의 주체들에게 공동체 수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것은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시기에 '언택트'와 '기술'을 뉴노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성장과 시장주의가 부각되면 차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균열을 내는 다른 목소리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여성환경연대도 환경과 인간이 더불어 공존하고 우리 사회가 성장 일변도의 담론을 버리고 탈성장사회로 가는데 여성들의 목소리가 광범위한 연대로 이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